

권기범-낮은 목소리의 설득

김윤옥(금호미술관 큐레이터)

권기범의 작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은 자연의 그것들이다. 가끔 도시의 현란한 이미지들이 담기도 하지만, 그의 작업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은 자연 속의 이미지들이다. 기하학적으로 형상화된 꽃의 이미지가,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이, 그리고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재현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화선지에 적묵법이나 배채법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두화(指頭畵)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들과 함께 전시되는 영상이나 설치 작업들 또한 그의 작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동양회화의 자연주의 견해와 현대 문명의 대립적 성향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실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전시에서는 평면작업에서부터 공간설치, 그리고 영상작업에 이르는 작업들을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업에서도 자연미와 인공미 등의 대립적 요소들과 상충되는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첫 개인전부터 꽃을 주제와 소재로 삼아 그려온 권기범은 이번 전시에서도 꽃의 이미지를 선보인다. 권기범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이 꽃은 정밀하게 묘사된 형태는 아니다. 언뜻 보면 기하학적이고 디자인적인 이미지의 이 꽃을 작가는 'Glass Flower'라고 명명한다. 다소 진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작가는 개인적인 감흥에서부터, 철학적인 의미와 동양화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작가는 꽃이 생성해서 시들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창작을 하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가는 꽃이라는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그린다는 명확한 작가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꽃의 이미지를 마치 파편화한 듯 형상화시키며 해체주의와 존재태의 의미를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꽃을 담고 있는 평면 작업은 평면 회화 속의 선-필(筆)을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설치 작업이 함께 연출된다. 근래에 작가는 시각적 형상의 본질인 '중력'에 대한 생각들을 고무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드러낸다. 평면에 담긴 꽃의 이미지의 선들은 전시 공간에서 고무줄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고무줄을 통해서 선이 2차원의 평면에서 재현되는 경우와 3차원의 공간에서 연출되는 경우의 시각적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평면 작업들과 함께 연출되는 영상작업은 작가가 지난해 중국에서 채집한 이미지들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회화의 소재로 쓰이는 소재들인 호숫가의 물결과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영상으로 구성했다. 영상작업이라고 하여, 시각이나 사운드가 감각적이거나 동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의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담고 있는 동양화를 스틸컷으로 보는 듯 고요하다. 서로 다른 형식의 작업들이 한 공간에서 연출되면서, 자연과 인공 그리고 이들의 조형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을 볼 수 있는 권기범의 작업은 다양한 매체의 복합적인 연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많은 이머징 아티스트

들의 작품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작가만의 재기발랄함이라든가 화려함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의 작업은 소재적인 측면에서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슈화되거나 눈에 띄게 반짝거리는 작업들은 분명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작업들은 더욱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를 내려는 듯 하다. 그러나 그의 꽃 작업과 마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그의 영상이 말해주듯, 권기범의 작업은 충분하고 진솔한 동기와 이해에서 출발하기에 작가는 다양한 형식의 실험과 기본에 충실한 작업들을 오가며, 이들을 즐길 수 있는 듯 하다. 마치 그의 영상속의 잔잔하지만 꾸준한 호숫가의 파문처럼, 조요하지만 지속적인 실험과 새로운 모색이 권기범의 작업을 지속시킨다.

작가는 그의 작품의 토대를 입의(立意)라고 한다. 뜻과 정신을 중시하는 이 표현처럼 뜻을 담고 있기에 그의 작업은 보는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